

중학생의 인터넷음란물 접속과 성 의식의 관계

임종인 · 최인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경기 정림초등학교*

Relationship between Access to Lewd Internet Contents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Awareness of Sex

Lim, Jong-In · Choi, In-Soo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onglim Elementary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presenting logical viability for the measures that curtail access to lewd Internet contents by middle school students amidst the reality in which lewd contents are circulated freely through the Internet, a medium that the middle school students find most easy to access. In order to establish right form of awareness towards sex,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ways they access the lewd Internet contents, their reaction after the exposure to those contents, their knowledge of sex, their concerns regarding sex and their accessibility to sexual activities in order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wd Internet contents and their awareness of sex.

First, realities of accessing lewd Internet contents and reaction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accessing lewd Internet contents in terms of gender. Mostly, male students tend to access the contents more. As for the way they access the lewd Internet contents,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replied that they access through spam mail of lewd nature. Thus, measures to address this problem are needed urgently. As to when they first accessed the lewd contents, most of the research subjects replied that they accessed either in elementary school period or in the early middle school period. This shows that most of the students got exposed to lewd contents even before they could establish positive, correct awareness of sex. Thus, there is a risk that they may formulate wrong kind of sexual awarenes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through focused sex education.

Studen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time they spend on the contents averagely : those who spend over one hour and those who spend less than an hour on the

lewd contents. If the students spending longer hours are not to be checked and properly guided, it may lead to increasing cases of sexual delinquencies due to their wrongly formed awareness of sex. When the question of existence (non-existence) of guardian was addressed, students with both parents tend to access the lewd Internet contents in a more diverse manner and tend to access more compared to those students from single parent or no-parent families. Accordingly, guardians need to pay attention to how their children are using the Internet.

Second, awareness of sex depending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demographics

In case of sexual knowledge, middle school students shows relatively high level of knowledge. In particular, female students are found more knowledgeable than male students, and the students in upper years are more knowledgeable as well. As a result, this research recommends that the students in lower years should be guided with more basic and detailed information, while those in upper years need to be taught to form and express their own thoughts and attitudes and to build up independence on this matter.

In case of worries about sex,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don't worry too much about it. However, male students are more concerned about sex than female students in a more diverse ways. As for the differences by academic year, concerns for sex increase, as students get older. Accordingly, sex education that helps establish sound perception of the opposite sex and that focuses on the etiquettes that one must adhere to at the presence of the opposite sex need to be conducted against middle school students.

In case of accessibility to sex, male students manifest higher tendency than female students. As for the differences by academic year, those in the first and second years show higher accessibility than those in their third year. In general, younger students tend to be more open-minded toward sex. Accordingly, students in lower academic years need to undergo basic knowledge oriented sex education, whereas those in upper academic years need to undergo discussion centered sex education where they subject to questions regarding their attitude and opinion.

Third, relationship between the reactions after the exposure to the lewd Internet contents and their awareness of sex

As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lewd Internet contents increases, awareness of sex increases as well. Thus, the lewd Internet contents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students' concern for sex as well as increase in accessibility to sex, which eventually become barriers to students' establishment of a healthy perception of sex. Reactions to sex after the exposure to lewd Internet contents and awareness of sex indicate a significant correlation. However, negative correlation is manifested with knowledge of sex. Thus, it is possible to know that the greater access to lewd Internet contents does not necessarily translate into increase in knowledge of sex. However, the study showed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concerns for sex and the level of accessibility to sex. In more detail, the more reactions to the contents they show, the more concerns for sex they have and the more positively they take acceptability to sex.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cessary measures since textbooks today do not include measures needed to address the lewd Internet contents.

Given the abov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complement structural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easy access of lewd Internet contents by middle school student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ate of the students so that they themselves can form a healthy Internet culture and grow up within positive framework for the sex edu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의 발달은 새로운 문화혁명을 일으켜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시대를 현실로 다가오게 만드는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인터넷과 관련된 음란물의 정보는 과거 인터넷 이전의 시대보다 엄청나게 우리주변으로 쉽게 접근해 왔다. 이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손쉽게 다양한 음란정보를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인들의 상업적인 음란정보를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이 쌓이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청소년이 인터넷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음란물 접속실태를 파악해 보고 건전한 성 의식이 왜곡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성은 선천적 본능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되어 간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성욕과 성

적 행동은 그 기초가 생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청소년이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성적 호기심과 욕구가 과거에는 결혼 연령의 조기화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으나 현대에 들어 결혼 적정 연령이 늦추어짐에 따라 성적요구의 발생 시기와 해소할 수 있는 시기 사이에 성 욕구 해소의 공백기가 생기게 되므로 인간의 본능적인 성적 욕구를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이기수, 2000).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6,500명을 대상으로 2002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표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생들의 음란사이트 접속 현황이 접속경험이 있다가 65%, 접속경험 없다가 35%로 조사되었으며, 접속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본 경우가 33.8%, 친구나 선·후배 소개가 23.8%, 일부러 검색한 경우가 15.5%, 스팸메일이 9.7%, 기타 17.4%로 조사되어 인터넷 인프라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그 일면에는 이러한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I-1. 중·고등학생들의 음란사이트 접속 현황

접속경험 유·무	접속한 경험 있다			접속한 경험 없다		
	65%			35%		
접속 경로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친구 나 선·후배 소개	일부러 검색	스팸메일	기타	.
	33.8%	23.8%	15.5%	9.7%	17.4%	.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2)

최근 사회 각계에서는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소년 대화 광장의 『청소년의 폭력 및 성폭력 실태』에 따르면 초, 중, 고생 34%가 성희롱, 폭력 경험을 하고, 성 관련 사건이 발생 땐 60%가 혼자 해결하거나 아무 대처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성폭력 가해자의 50% 이상이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차지함으로써, 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다(최영애, 1996). 더구나 청소년의 경우, 성에 관한 지식이 미약하고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성폭력의 안전지대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표 I-2〉의 내용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연감 통계자료로 인터넷 관련 전체 시정요구 자료 중 음란물과 관련된 자료만을 발췌한 것이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음란 정지 영상(5,698건)이나 음란 동영상(1,928건)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내용이 삭제(4,461건)되거나 사이트 이용이 해지(2,011건)될 만큼 노골적이라는 데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

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이트들이 정지 영상이나 동영상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불 건전한 만남을 주선(1,387건)하여 상업적인 이득을 얻으려는데 더 큰 목적을 두어 청소년에게까지도 무차별적인 음란한 만남을 주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행해진 한 연구(윤영민, 2000)에서는 응답자의 39.3%에 달하는 학생들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정임·김동규, 2000)에서는 응답자의 59%에 달하는 학생들이 '음란물 중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음란물은 음란 사진과 음란 만화가 가장 많고(53%), 음란 동영상(34%), 음란 소설(23%)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는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위해 음란물을 이용하고(30.1%), 음란물을 보며 자위 행위(10.5%)나 사이버 섹스(5.9%), 채팅의 상대와의 직접 성관계(4.0%)를 가진 경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성적 부적응 현상은 왜곡된 성의 정체감 형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곧 학업 성적 부진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학창시절을 좌절감과 무력감에 젖어들게 함으로써

표 I-2. 인터넷음란물 관련 시정요구 현황

위 반 내 용	심의 건수	시 정 요 구				
		계	내용삭제	경 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 / 폭력 문자	1,299	943	602	232	20	89
음란 / 폭력물 판매	633	462	16	50	145	251
음란 / 폭력물 구매	65	59	11	48	0	0
음란 / 폭력물 교환	621	594	14	577	3	0
불건전 만남 유도	1,387	1,098	94	230	637	137
음란물 소재 안내	301	102	27	50	21	4
음란 정지 영상	5,698	5,051	3,352	250	27	1,422
음란 동영상	1,928	1,761	1,109	62	1	589
음란 게임	372	318	127	134	0	57
기타 / 분류외	1,935	1,186	734	96	9	347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2001)

급기야 퇴폐적·범죄적 충동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있어서 성적 부적응 현상은 성인후의 생활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혼과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어서 성 태도와 관련된 적절한 지도는 매우 긴요한 과제라 하겠다. 청소년의 성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해주는 원인중의 하나는 인터넷의 발달로 미성년자에게 자유로이 노출되는 성에 관한 무수히 많은 정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습득하는 과정에서 잘못 받아들이면 성에 대한 이상적인 가치관이 흔들려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고, 성적 욕구를 자극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는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2001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표 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9.3%에 달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학생 중에서 사이버 상에서 성폭력의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14.1%나 된다는 것이다. 음란물 접촉 후의 느낌에 대한 물음에서는 스트레스 해소나 성적 충동을 강하게 느낀 청소년들이 22.1%나 되어 인터넷 음란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현상이다.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에서 개발한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교재에 의하면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네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2001).

첫째, 성충동이 성범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들에게 강한 성 충동을 일으킵니다. 청소년기에 생기는 성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음란물을 보게 됨으로서 음란물에서 보여진 성행위를 모방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기고, 심한 경우 강간이나 성폭행 등 충동적인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10대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70% 정도가 인터넷 음란물을 접하면서 성범죄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둘째,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광고(CF)를 보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너무 시원하다고 사람이 퐁퐁 얼어 버리기도 하고, 과자 광고를 보면 너무 맛있다고 사람이 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광고는 상품을 팔기 위해 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음란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성을 매우 과장되게 표현하고, 자극적인 장면을 담게 되고, 성을 왜곡시킵니다. 따라서 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표 I-3.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 실태와 윤리의식

음란사이트 접촉 경험	비율(%)	음란물 접촉 후 느낌	비율(%)
음란사이트 방문 경험 (거의 매일)	39.3 (1.6)	별 느낌 없었다	42.2
음란 채팅 경험 (1달에 1번 이상 주기적으로)	18.1 (6.1)	재미있고 스트레스 해소	10.2
사이버 성폭력 가해 경험	14.1	따라하고 싶은 강한 충동	11.9
인터넷 중독	11	협오감 (죄책감, 수치심)	13.0 (15.7)

(한국 성폭력 상담소, 2001)

이러한 인터넷 음란물을 보고 성은 단지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책임감과 올바른 가치관보다는 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음란물에 빠지면 마약처럼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을 계속 보게 되면 음란물에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에 자극적인 음란물을 보게 되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고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중독되는 것이 목표일 수 있겠죠.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할까요?

넷째, 자기도 모르게 사이버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몰래 사용한다거나 친구들에게 음란물을 알려줘서 유통시키는 등 음란물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중학생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무한정 배포되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중학생의 올바른 성 의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터넷음란물 접속실태를 파악해 보고, 접속 후의 반응을 알아본 뒤, 성과 관련된 성 지식, 성 고민, 성 허용성을 분석하여 인터넷음란물과 성 의식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 중학생의 인터넷음란물 접속규제방안의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3. 연구의 문제

이 연구는 중학생의 인터넷음란물 접속실태는 어떠한가를 조사해보고, 인터넷음란물이 중학생의 성 의식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인터넷음란물의 규제방안을 제시해보고,

중학생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 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학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음란물 접속은 어떠한가?

성별, 학년별, 학업성적, 보호자 등에 따라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접속실태 및 접속반응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나.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 의식은 어떠한가?

성별, 학년별, 학업성적, 보호자 등에 따라 성 지식, 성 고민, 성 허용성 등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다. 인터넷음란물 접속과 성 의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인터넷 음란물 접속실태에 따라 성 의식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접속반응에 따라 성 지식, 성 고민, 성 허용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인터넷음란물 접속에 따른 중학생의 성 의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연구는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단으로 하지 못하고, 인천광역시 지역의 중학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표본집단의 수를 한정하였으므로 전체집단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5.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가. 음란물 : 인간의 성적행동을 노골적 혹은 노골적이지 않게 묘사한 다양한 성적 표현 형식들을 말한다.
- 나. 인터넷음란물 : 사진, 소설, 동영상 형태의 음란물을 인터넷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로 변환시키거나 컴퓨터의 특성을 적용해 제작된 것을 말한다.
- 다. 음란스팸메일 :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광고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모든 메일을 말하며, 사용자가 원치 않는 메일을 뜻한다.
- 라. 와레즈사이트 : 음란물을 불법 복제하여 인터넷 상에 무료로 올려놓은 모든 것을 말한다.
- 마. 성 지식 : 성에 대해 알고있는 사전에 지각된 정보를 의미한다.
- 바. 성 고민 : 성과 관련하여 현재 고민되는 것을 말한다.
- 사. 성 허용성 : 성과 연관되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며, 직접적인 성 접촉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으로 제한한다.

태준(2000)의 연구 결과에서는 음란물의 접촉경험의 시기가 갈수록 저 연령화 되어감에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시기에 음란물에 대한 집중적인 선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시기에서는 정기적으로 음란물을 접촉하는 집단과 별로 접촉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화가 뚜렷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 의식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중학생을 중심으로 모집단 구성하였으며, 음란영상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접촉기회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선행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1997)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남학생에게 가중치를 두어 남학생 350명, 여학생 300명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610명분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편집과정 중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하게 답한 설문을 제외한 587매를 통계분석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 의식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윤

2. 연구 내용 및 기간

이 연구는 2002. 3. 10~2003. 10. 20까지의 연구로 <표 II-1>과 같다. 이 연구는 계획 및 자료수집을 통해 선행연구를 고찰해보고, 연구설계를 하였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총 2회에 걸쳐 사전조사 작업을 했으나, 수정하여야 할 문항이 많아서 계획부터 전면 재수정을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를 총 10개 학교에 배부하였고, 나온 결과로 자료처리를 하였으며 결과해석에서 유의차가 나지 않는 문항은 연구자가 삭제 및 코딩변경을 하였다.

표 II-1. 연구 내용 및 기간

순서	연구 내용	연구 기간
1	연구계획 및 자료수집	2002. 3. 10~2002. 4. 30
2	설문지 작성	2002. 5. 1~2002. 6. 30
3	사전조사 실시	2002. 9. 1~2002. 10. 30
4	설문지 검토 및 수정	2002. 12. 10~2003. 2. 5
5	설문지 배부 및 회수	2003. 3. 20~2003. 4. 25
6	자료처리 및 분석	2003. 5. 1~2003. 7. 30
7	논문 작성	2003. 8. 1~2003. 10. 20

3. 조사방법 및 검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인터넷음란물 접촉에 따른 청소년의 성 관련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로 선행연구 자료들(최경화, 2001; 이기수, 2000; 문정혜, 2000; 윤태준, 2000; 장선화, 1997; 김상원, 1998; 김용자, 1993; 이한우, 1990)의 설문 문항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통해서 설문 내용의 적합도를 검토한 후,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여 본 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가. 사전 조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사전 조사의 목

적은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설문지 응답시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지적하도록 한 후,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나. 본 조사

이 연구의 본 조사는 2003. 3. 20~2003. 4. 25일까지 각 학교 담임교사로 하여금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연구의 목적과 실시상의 주의점을 알려주고 실시케 하여, 총 회수된 610매의 설문지 중 편집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587매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표 II-2. 설문지의 주요 구성 내용

구 성 지 표	구 성 내 용	문 항 수
인터넷음란물 접촉관련	접속빈도, 시간, 종류, 시기, 경로 장소, 접속자, 접속반응(5)	12
성 의식 관련	성 지식, 성 고민, 성 허용성	20
인구통계학적 특 성	성별, 학년, 학업성적, 보호자(2)	5
	계	37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N	%
성 별	남 자	318	54.2
	여 자	269	45.8
학 년	1 학 년	187	31.9
	2 학 년	202	34.4
	3 학 년	198	33.7
학업 성적	31등~40등	161	27.4
	21등~30등	228	38.8
	11등~20등	171	29.1
	10등 이내	27	4.6
보호자 유·무	양친 부모	352	60.0
	결혼 가정	235	40.0
보호자 직 업 유·무	맞 별 이	274	46.7
	아 버 지 만	240	40.9
	어 머 니 만	46	7.8
	기 타	27	4.6

다. 설문지의 구성

이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사전에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문항을 제외하고 구성하였다. 인터넷음란물 접속에 관한 12개 문항, 성 의식 관련 성 지식, 성 고민, 성 허용성 20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5개 문항 등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2>와 같다.

4. 자료 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집된 자료를 coding한 후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중학생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인터넷 음란물 접속의 관련성은 빈도분석과 카이제곱으로 하였다.
- 나. 중학생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 의식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다. 중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에 따른 성 의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II-1>과 같다.

이 연구에 응한 설문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54.2%, 여자가 45.8%이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31.9%, 2학년이 34.4%, 3학년이 33.7% 이다. 이는 윤태준(2000)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남자가 여자보다 인터넷음란물을 접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결과에 의한 것이

다. 학업성적은 10등 이내 4.6%, 11등~20등이 29.1%, 21등~30등이 38.8%, 31등~40등이 27.4%를 나타냈다.

보호자의 유·무는 두분 모두 계신 경우가 60.0%를 차지하였으며, 결혼가정인 경우는 40.0%로 집계되었다. 또한 부모의 직업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46.7%, 아버지만 직업이 있는 경우가 40.9%, 어머니만 직업이 있는 경우는 7.8%, 기타가 4.6%를 나타내었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접속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접속실태

1) 성별에 따른 접속실태

<표 III-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 여 성별에 따른 접속실태를 분석해본 결과에서 접속빈도는 주 3회 이상 접속하는 집단에서는 남자 62.9%, 여자 37.1%를 보였으며, 전체 접속빈도로 볼 때는 16.5%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였고, 주 1회 이상 접속하는 집단은 35.3%, 월 1~2회 접속하는 집단은 38.5%의 비율을 보였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명화(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성 행태에 대한 실태 결과에 따르면 음란매체 접촉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연구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접속종류는 음란스팸메일 42.5%, 와레즈 사이트 29.4%, 성인사이트 19.8%, 기타 8.3% 순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음란스팸메일의 접속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을 볼 수가 있었고, 음란스팸메일에서는 남자 48.4%, 여자 51.6% 접속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성인사이트의 접속의 경우 남자 66.7%, 여자 33.3%로 나타나 남학생들의 접속종류가 음란물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

지고 있는 성인사이트로 몰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음란물을 처음 접한 시기에 관한 질문에서는 초등학교 40.9%, 중1학년 43.8%, 중2학년 15.3%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때 처음 본 집단에서는 남자가 30.8%, 여자가 10.2%로 남자가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윤태준(2000)의 연구에서도 음란 영상매체가 청소년의 학습집중도와 성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본 결과, 음란 영상물의 접촉 경험 시기가 갈수록 저 연령화 되어가므로 특히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나고 고등학교시기에 이르면 이미 음란 영상물을 계속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집단과 별로 접촉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점, 또한, 전자의 경우 성 비행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분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초, 중등학교시기에 체계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을 접속하게된 경로에 관한 질문에서는 우연한 계기 47.9%, 친구 소개 31.5%, 직접검색 17.9%, 기타 2.6%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난 우연하게 보게된 경우에서 남자는 29.6%, 여자는 18.3%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직접 궁금해서 검색한 집단에서는 남, 여간에 별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속장소, 함께 접속한 사람과의 문항에서는 유의수준이 $P < .10$ 과 $P < .25$ 수준에서 유의차가 나와 성별과는 관련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을 보는 시간에 관한 문항에서는 30분 이내 집단에서는 전체 37.4% 중 남자 10.8%, 여자 26.6%가 나와 남자보다 여자가 접속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보는 집단에서는

남자가 18.5%, 여자가 3.0%를 나타내었고, 1시간이상의 집단에서는 남자가 24.0%, 여자가 9.8%를 보여 접속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접속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보인다. 장선화(1997)의 연구에서도 남녀간의 음란물 접속시간의 차이에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접속하는 시간이 길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2) 학년에 따른 접속실태

〈표 Ⅲ-3〉의 학년에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의 접속실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접속빈도는 주 3회 이상 16.5%, 주 1회 이상 35.3%, 월 1~2회 접속은 38.5%를 보였고, 가장 접속빈도가 많은 주 1회 이상의 집단에서는 1학년이 34.8%, 2학년이 25.1%, 3학년이 40.1%로 나타났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기수(2000)의 연구에서 음란매체의 학년별 접속 정도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어떠한 종류의 인터넷 음란물을 접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타 8.5%, 성인사이트 19.8%, 음란스팸메일 24.7%, 와레즈 사이트 47.0%로 나타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정 배포되는 음란스팸 메일이나 와레즈 사이트가 중학생에게 가장 많이 접속하는 종류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응답한 접속종류인 와레즈 사이트의 접속에서는 학년간에 별 차이가 없었으나, 성인사이트를 접한다는 질문에서는 1학년 10.0%, 2학년 5.1%, 3학년 4.7%로 나타나 노골적인 음란물을 보는 학생들은 1학년이 2,3학년보다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문항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김태균(1999)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음란물을 처음 접한 시기는 언제였느냐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나 중 1학년 때 접했다고 84.7% 답하였고, 접속을 하게된 경로는 우연한 계기가 가장 많았다.

또 학년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접속했느냐는 질문에서 나 혼자 접속한다는 문항에 답한 학생은 1학년 35.0%, 2학년 27.0%, 3학년 38.0%였

표 Ⅲ-2. 성별에 따른 접속실태

n(%)

변 인		남 자	여 자	전 체	$\chi^2(df)$
빈 도	주 3회 이상	61(62.9)	36(37.1)	97(16.5)	17.748*** (2)
	주 1회 이상	129(62.3)	78(37.7)	207(35.3)	
	월 1~2회	101(44.7)	125(55.3)	226(38.5)	
종 류	성인사이트	70(66.7)	35(33.3)	105(19.8)	16.131*** (3)
	스팸메일	109(48.4)	116(51.6)	225(42.5)	
	와레즈 사이트	80(51.3)	76(48.7)	156(29.4)	
	기 타	32(72.7)	12(27.3)	44(8.3)	
시 기	초등학교	163(30.8)	54(10.2)	217(40.9)	63.136*** (2)
	중 1학년	101(19.1)	131(24.7)	232(43.8)	
	중 2이상	27(5.1)	54(10.2)	81(15.3)	
경 로	직접검색	41(7.7)	54(10.2)	95(17.9)	15.626*** (3)
	친구소개	82(15.5)	85(16.0)	167(31.5)	
	우연한 계기	157(29.6)	97(18.3)	254(47.9)	
	기 타	11(2.1)	3(0.6)	14(2.6)	
장 소	자 기 집	192(36.2)	177(33.4)	369(69.6)	4.068 (2)
	친 구 집	58(10.9)	37(7.0)	95(17.9)	
	기타(학교, PC방)	41(7.7)	25(4.7)	66(12.5)	
접속자	나 혼자	177(33.4)	160(30.2)	337(63.6)	2.247 (2)
	친 구	96(18.1)	68(12.8)	164(30.9)	
	기타(선·후배, 친척)	18(3.4)	11(2.1)	29(5.5)	
시 간	30분 이내	57(10.8)	141(26.6)	198(37.4)	133.535*** (3)
	30분~1시간	98(18.5)	16(3.0)	114(21.5)	
	1시간 이상	127(24.0)	52(9.8)	114(21.5)	

***p<.001

고, 친구와 함께 접속한다는 문항에 답한 학생은 1학년 29.9%, 2학년 40.9%, 3학년 29.2%였으며, 1, 3학년에 비해 2학년이 친구들과 함께 음란물을 접속하는 경향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3) 학업성적에 따른 접속실태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성적에 따른 인터넷음란물 접속실태는 통계적으로 특별한 유의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보호자에 따른 접속실태

〈표 Ⅲ-5〉는 보호자의 유, 무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접속실태를 분석한 표이다.

〈표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자의 유, 무에 따라서 접속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친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사는 집단이 결손가정의 집단보다 접속빈도가 높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3회 이상의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친 부모님이 계신 경우가 56.7%, 결손가정이 43.3%로 나타났고, 주 1회 이상의 접속의 경우 친 부모님이 65.7%, 결손가정이 34.3%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결손가정의 학생들보다는 친 부모님과 생활하는 학생들이 더 음란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접속시기에 관한 질문에서는 초등학교 때 처음 접했다고 답한 학생 중 친 부모님이 모두 계신 집단은 59.4%, 결손가정의 집단에서는 40.6%를 보였고, 중 1학년 때 처음 접한 학생 중 친 부모님이 모두 계신 집단은 61.6%, 결손가정의 집단에서는

표 III-3. 학년에 따른 접속실태

n(%)

변 인		1학년	2학년	3학년	전 체	$\chi^2(df)$
빈 도	주 3회 이상	37(38.1)	21(21.6)	39(40.2)	97(16.5)	36.608*** (4)
	주 1회 이상	72(34.8)	52(25.1)	83(40.1)	207(35.3)	
	월 1~2회	68(30.1)	96(42.5)	62(27.4)	226(38.5)	
종 류	성인사이트	53(10.0)	27(5.1)	25(4.7)	105(19.8)	24.552*** (6)
	스팸메일	39(7.4)	51(9.6)	41(7.7)	131(24.7)	
	와레즈 사이트	73(13.8)	81(15.3)	95(17.9)	249(47.0)	
	기 타	12(2.3)	10(1.9)	23(4.3)	45(8.5)	
시 기	초등학교	90(41.5)	62(28.6)	65(30.0)	217(40.9)	66.985*** (4)
	중 1학년	87(37.5)	82(35.3)	63(27.2)	232(43.8)	
	중 2이상	.	25(30.9)	56(69.1)	81(15.3)	
경 로	직접검색	33(34.7)	17(17.9)	45(47.4)	95(17.9)	17.758** (6)
	친구소개	52(31.1)	52(31.1)	63(37.7)	167(31.5)	
	우연한 계기	89(35.0)	94(37.0)	71(28.0)	254(47.9)	
	기 타	3(21.4)	6(42.9)	5(35.7)	14(2.6)	
장 소	자 기 집	126(34.1)	109(29.5)	134(36.3)	369(69.6)	6.963 (4)
	친 구 집	28(29.5)	41(43.2)	26(27.4)	95(17.9)	
	기타(학교, PC방)	23(34.8)	19(28.8)	24(36.4)	66(12.5)	
접속자	나 혼자	118(35.0)	91(27.0)	128(38.0)	337(63.6)	10.733* (4)
	친 구	49(29.9)	67(40.9)	48(29.2)	164(30.9)	
	기타(선·후배, 친척)	10(34.5)	11(37.9)	8(27.6)	29(5.5)	
시 간	30분 이내	85(16.0)	71(13.4)	81(15.3)	237(44.7)	5.078 (4)
	30~1시간	42(7.9)	39(7.4)	33(6.2)	114(21.5)	
	1시간 이상	50(7.4)	59(11.1)	70(13.2)	179(33.8)	

*p<.05, **p<.01, ***p<.001

표 III-4. 학업 성적에 따른 접속실태

n(%)

변 인		10등 이내	11등~20등	21등~30등	31등~40등	전 체	$\chi^2(df)$
빈 도	주 3회 이상	5(5.2)	25(25.8)	35(36.1)	5(5.2)	97(16.5)	8.029 (6)
	주 1회 이상	9(4.3)	58(28.0)	92(44.4)	9(4.3)	207(35.3)	
	월 1~2회	13(5.3)	72(31.9)	78(34.5)	13(5.3)	226(38.5)	
종 류	성인사이트	5(0.9)	29(5.5)	36(6.8)	5(0.9)	49(19.8)	12.474 (9)
	스팸메일	7(1.3)	28(5.3)	54(10.2)	7(1.3)	131(24.7)	
	와레즈 사이트	10(1.9)	82(15.5)	100(18.9)	10(1.9)	249(47.0)	
	기 타	4(0.8)	16(3.0)	15(2.8)	4(0.8)	45(8.5)	
시 기	초등학교	11(5.1)	58(26.7)	82(37.8)	11(5.1)	217(40.9)	5.217 (6)
	중 1학년	13(5.6)	68(29.3)	95(40.9)	13(5.6)	232(43.8)	
	중 2이상	2(2.5)	29(35.8)	28(34.6)	2(2.5)	81(15.3)	
경 로	직접검색	2(2.1)	31(32.6)	37(38.9)	25(26.3)	95(17.9)	5.837 (9)
	친구소개	7(4.2)	52(31.1)	63(37.7)	45(26.9)	167(31.5)	
	우연한 계기	17(6.7)	69(27.2)	98(38.6)	70(27.6)	254(47.9)	
	기 타	.	3(21.4)	7(50.0)	4(28.6)	14(2.6)	
시 간	30분 이내	10(4.2)	70(29.5)	96(40.5)	61(25.7)	237(44.7)	7.745 (6)
	30분~1시간	7(6.1)	25(21.9)	45(39.5)	37(32.5)	114(21.5)	
	1시간 이상	9(5.0)	60(33.5)	64(35.8)	46(25.7)	179(33.8)	

표 III-5. 보호자 유·무에 따른 접속실태

n(%)

변인	양친부모	결손가정	전체	$\chi^2(df)$	
빈도	주 3회 이상	55(56.7)	42(43.3)	97(16.5)	4.921 (2)
	주 1회 이상	136(65.7)	71(34.3)	207(35.3)	
	월 1~2회	131(58.0)	95(42.0)	226(38.5)	
종류	성인사이트	64(66.0)	41(39.0)	105(19.8)	9.233 (3)
	스팸메일	82(62.6)	49(37.4)	131(24.7)	
	와레즈 사이트	151(60.6)	249(47.0)	249(47.0)	
	기타	25(55.6)	45(8.5)	45(8.5)	
시기	초등학교	129(59.4)	88(40.6)	217(40.9)	5.273* (2)
	중 1학년	143(61.6)	89(38.4)	232(43.8)	
	중 2이상	50(61.7)	31(38.3)	81(15.3)	
경로	직접검색	54(56.8)	41(43.2)	95(17.9)	8.818* (3)
	친구소개	102(61.1)	65(38.9)	167(31.5)	
	우연한 계기	158(62.2)	96(37.8)	254(47.9)	
	기타	8(57.1)	6(42.9)	14(2.6)	
장소	자기 집	219(59.3)	150(40.7)	369(69.6)	2.125 (2)
	친구 집	64(67.4)	31(32.6)	95(17.9)	
	기타(학교, PC방)	39(59.1)	27(40.9)	66(12.5)	
접속자	나 혼자	201(59.6)	136(40.4)	337(63.6)	2.201 (2)
	친구	106(64.6)	58(35.4)	164(30.9)	
	기타(선·후배, 친척)	15(51.7)	14(48.3)	29(5.5)	
시간	30분 이내	142(59.9)	95(40.1)	237(44.7)	3.049 (2)
	30분~1시간	77(67.5)	37(32.5)	114(21.5)	
	1시간 이상	103(57.5)	76(42.5)	179(33.8)	

*p<.05

표 III-6.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접속반응

변인	N	M	SD	t / F	Duncan's	
성별	남자	291	3.32	.91	15.509***	
	여자	239	2.15	.79		
학년별	1학년	177	2.85	.97	.879	
	2학년	169	2.82	1.10		
	3학년	184	2.71	1.02		
학업성적	10등 이내	26	2.64	1.12	.685	
	11등~20등	155	2.72	.99		
	21등~30등	205	2.82	1.05		
	31등~40등	144	2.86	1.03		
보호자 유·무	양친 부모	322	2.81	1.03	.594	
	결손 가정	208	2.76	1.04		
보호자 직업 유·무	맞벌이 (a)	250	2.74	1.07	6.744***	ab < cd
	아버지만 (b)	213	2.70	.97		
	어머니만 (c)	43	3.30	.99		
	기타 (d)	24	3.34	.87		

***p<.001

38.4%를 보여 오히려 부모님이 모두 계신 학생들의 인터넷음란물 접속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로 볼 때 인터넷 음란물은 친 부모님이 모두 계신 학생들에게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접속경로에 관한 질문에서는 기타 2.6%, 직접 검색 17.9%, 친구소개 31.5%, 우연한 계기 47.9% 순으로 나왔으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우연한 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친 부모님이 모두 계신 집단에서는 62.2%, 결손가정의 집단에서는 37.8%로 나타나 처음접속시기에 관한 질문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접속반응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음란물 접속반응을 보기 위해 <표 IV-6>과 같이 분석하였다. 인터넷음란물 접속반응은 5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최하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최고5점 "매우 그렇다"까지를 부여하여 평균을 내었다.

결과를 볼 때, 남자 3.32, 여자 2.15로 접속반응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남자에게서 인터넷 음란물 접속반응에 따라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이승희(1991)의 연구에서 음란물 접속반응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 텔레비전에서 표현되는 애정물에 대한 반응은 강도가 높을수록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훨씬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 2.85, 2학년 2.82, 3학년 2.71순으로 나타났고, 결과를 볼 때 저학년일수록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접속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업성적별

로 보면은 10등 이내 2.64, 11등~20등 2.72, 21등~30등 2.82, 31등~40등 2.86 순으로 나타나 학업 성적순에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의 접속반응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보호자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맞벌이 2.74, 아버지만 직업이 있는 경우 2.70, 어머니만 직업이 있는 경우 3.30, 기타 3.34로 나타났으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Duncan's의 사후검정 결과 맞벌이와 아버지만 직업이 있는 경우와 어머니만 직업이 있는 경우나 기타에서 동일 집단군이 2가지 부류로 형성되었음이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어머니만 직업이 있거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어 부모님이 직업이 없는 학생들에게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 음란물 접속에 따른 예방적 교육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본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 의식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표 III-7>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 지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 지식에 관한 10문항을 학생들에게 설문하여 전부 틀리면 10점부터 전부 맞으면 20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15.82, 여자 17.43로 나타나 여학생의 성 지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 지식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승희(1991)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성 지식은 대체로 높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지식의 인지도도 남학생들이 많은 성 지식을 갖고 있다는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 성 지식에 대한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는 1학년 16.18, 2학년 16.67, 3학년 16.80 순

표 III-7. 성 지식에 대한 차이검증

변 인		N	M	SD	t / F	Duncan's
성 별	남 자	318	15.82	2.29	8.610***	
	여 자	269	17.43	2.21		
학년별	1학년 a	187	16.18	2.28	3.634*	a < bc
	2학년 b	202	16.67	2.44		
	3학년 c	198	16.80	2.42		
학업 성적	10등 이내	27	16.60	2.60	2.032	
	11등~20등	171	16.54	2.45		
	21등~30등	228	16.81	2.28		
	31등~40등	161	16.20	2.43		
보호자 유·무	양친부모	352	16.60	2.41	.491	
	결손가정	235	16.49	2.37		
보호자 직업 유·무	맞벌이 (a)	274	16.81	2.24	4.141**	ab > cd
	아버지만 (b)	240	16.53	2.55		
	어머니만 (c)	46	15.59	2.12		
	기타 (d)	27	15.96	2.53		

*p<.05, **p<.01, ***p<.001

으로 나타났으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은 매년 반복되는 성교육을 통해 학년이 거듭할수록 다양하고 폭 넓게 성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2, 3학년 집단이 동일 집단을 형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업성적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적이 좋은 집단인 10등 이내 16.60와 성적이 나쁜 집단인 31등~40등 16.20을 비교해 보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자 유·무별로 보면 양친부모가 있는 집단 16.60, 결손가정 16.49의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자의 직업 유·무별로 보면 맞벌이 16.81, 아버지만 직업이 있는 경우 16.53, 어머니만 직업이 있는 경우 15.59, 기타 15.96로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 학생들이 알고 있는 성 지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Duncan's의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맞벌이, 아버지만 직업이 있는 경우와 어머니만

직업이 있거나 기타인 경우에서 동일 집단을 형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III-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인 성 지식은 최하 57.2%에서 최고 80.6%까지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성 관계에 관한 질문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으며 80.6%, 남녀 생리현상에 관한 질문에서도 75.1%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을 보면 "가장 안전한 피임은 성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에 대해 80.6%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몽정이란 잠잘 때 꿈을 꾸면서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에 대해 75.1%, "월경이란 자궁에서 나오는 혈액이다"에 73.3%,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 한다"에 70.7%, "단 한번의 성행위로 임신이 되기도 한다."에 70.0%를 보였다.

특히, "몽정이란 잠잘 때 꿈을 꾸면서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란 질문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정답률이 높은 것과, "월경이란 자궁에서 나오는 혈액이다."란 질문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정답률이 높은 것은 특이한 사항이

표 III-8. 성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

n(%)

성 지식 문항	남 자	여 자	전 체
1. 정자는 자궁 내에서 약 48시간 동안 살 수 있다.	152(25.9)	190(32.4)	342(58.3)
2. 가장 안전한 피임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237(40.4)	236(40.2)	473(80.6)
3. 여성이 생리 중에도 임신이 가능하다.	153(26.1)	210(35.8)	363(61.8)
4. 매독은 치료받아도 재발될 수 있다.	195(33.2)	141(24.0)	336(57.2)
5. 사춘기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변하는 것은 뇌의 발달 때문이다.	155(26.4)	193(32.9)	348(59.3)
6. 몽정이란 잠잘 때 꿈을 꾸면서 정액이 몸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205(34.9)	236(40.2)	441(75.1)
7. 월경이란 자궁에서 나오는 혈액이다.	222(37.8)	208(35.4)	430(73.3)
8. AIDS는 동성연애자만 걸리는 병이다.	218(37.1)	167(28.4)	385(65.6)
9. 단 한번의 성행위로 임신이 되기도 한다.	197(33.6)	214(36.5)	411(70.0)
10.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 한다.	243(41.4)	172(29.3)	415(70.7)

표 III-9. 성 고민에 대한 차이검증

변 인	N	M	SD	t / F	Duncan's	
성 별	남 자	318	2.70	.60	-3.423***	
	여 자	269	2.36	.58		
학년별	1학년 (a)	187	2.59	.60	4.242*	ab < c
	2학년 (b)	202	2.57	.58		
	3학년 (c)	198	2.73	.61		
학업 성적	10등이내	27	2.75	.64	1.832	
	11등~20등	171	2.61	.54		
	21등~30등	228	2.59	.63		
	31등~40등	161	2.71	.59		
보호자 유·무	양친부모	352	2.60	.61	1.803	
	결손가정	235	2.69	.57		
보호자 직업 유·무	맞 별 이	274	2.60	.59	1.576	
	아버지 만	240	2.64	.58		
	어머니 만	46	2.80	.62		
	기 타	27	2.69	.62		

*p<.05, ***p<.001

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수정이라 한다."라는 문항은 남자와 여자의 공통적인 성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정답을 표기한 비율이 남자 41.4%, 여자 29.3%로 나타나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관계에 대한 질문 "가장 안전한 피임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는 남자 40.4%,

여자 40.2%, "단 한번의 성행위로 임신이 되기도 한다."에서 남자 33.6%, 여자 36.5%로 나타나 남녀간에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정답률이 낮은 문항으로는 "여성 생리 중에도 임신이 가능하다." 61.8%, "사춘기에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변하는 것은 뇌의 발달 때문이다." 59.3%, "정자는 자궁 내에서 약 48

시간 동안 살 수 있다." 58.3%, "매독은 치료받아도 재발될 수 있다." 57.2% 순으로 나타났다.

정답률이 낮은 문항 중 "여성이 생리 중에도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문항에서는 남자 26.1%, 여자 35.8%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고, 의외로 학생들이 임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남학생들이 임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보여 남학교에서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성병에 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매독은 치료받아도 재발될 수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남자 33.2%, 여자 24.0%를 보여 생리 중 임신에 대한 문항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고, 아직 직접적인 성행위를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성교육 할 때 중점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든다.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 고민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2.70, 여자 2.36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성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걸로 나타났다. 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이 결과는 이명화(1999)의 연구결과에서 성 고민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2.59, 2학년 2.57, 3학년 2.73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증결과에서도 1, 2학년이 동일 집단군을 형성되었음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표 III-9〉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

고민에 관한 질문으로 결과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 고민의 폭도 다양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저학년에서는 실제적인 성 지식 위주의 성교육이 필요하고, 고학년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성 의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표 III-10〉은 성 고민의 문항별 분포로 전체적으로는 2.64 성에 대한 고민이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끔 성 충동이 생겨서 공부가 안될 때가 있다." 3.04, "나의 몸을 보면 신체적인 매력이 있다." 2.40, "때때로 이성의 나체가 보고싶어진다." 3.42, "이성과 포옹이나 키스를 하고싶다." 2.94, "이성과 성교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62 등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고, 가장 평균이 높게 나타난 "때때로 이성의 나체가 보고싶어진다." 3.42는 학생들이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인기 연예인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선정적인 이미지의 모습을 자주 접하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또한, "이성과 성교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62로 나온 결과로 보아 연구에 응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이성과의 직접적인 성적접촉보다는 눈으로 보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성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고민의 전체평균이 2.64로 나타난 것처럼 대체적으로 성 고민에 대해 그리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이혜연

표 III-10. 성 고민의 문항별 분포

성 고 민 문 항	M	±	SD
1. 가끔 성 충동이 생겨서 공부가 안될 때가 있다.	3.04	±	1.26
2. 나의 몸을 보면 신체적으로 매력을 느낀다.	2.40	±	1.02
3. 때때로 이성의 나체가 보고 싶어진다.	3.42	±	1.28
4. 이성과 포옹이나 키스를 하고싶다.	2.94	±	1.18
5. 이성과 성교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62	±	.97
계	2.64	±	.59

(2002)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성 태도에 관한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 허용성

〈표 III-11〉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중학생의 성 허용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성별로는 남자 3.64, 여자 3.36으로 나왔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관해 좀 더 허용적이라는 결과로 보아 지금의 사회분위기와 그 맥락이 비슷하다고 사료된다. 학년별로는 1학년 3.85, 2학년 3.93, 3학년 3.52로 나왔고,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고, 상대적으로 저학년 집단인 1, 2학년들이 3학년보다 허용적이라는 것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에 대해 생각하고 허용하는 분위기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사후검정에서도 1, 2학년집단과 3학년집단이 동일 집단군이 형성되었음을 보였다. 또한 학업성적은 성적간에는 31등~40등 3.02, 11등~20등 3.01, 10등 이내 2.99, 21등~30등 2.90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 허용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등적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조양순(1998)의 연구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표 III-12〉는 성 허용성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난으로라도 이성친구의 몸을 만지는 행동은 좋지 않다." 3.52, "남, 여 상관없이 순결을 지켜야 한다." 3.76, "사랑이 없는 성관계도 가능하다." 2.52, "친한 친구사이라도 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2.35, "음란물을 보면 스트레스나 호기심이 해소되므로 보아도 상관없다." 2.48 등으로 나타났다.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남, 여 상관없이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순결의식이 높은 것을 보였고, "사랑이 없는 성 관계도 가능하다."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 쪽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과거의 중학생들보다 지금의 중학생들이 성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인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인 것이다.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친한 친구사이라도 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서는 앞에

표 III-11. 성 허용성에 대한 차이검증

변인		N	M	SD	t / F	Duncan's
성 별	남 자	318	3.64	.93	3.468***	
	여 자	269	3.36	1.03		
학년별	1학년 (a)	187	3.85	1.36	5.715**	c < ab
	2학년 (b)	202	3.93	1.29		
	3학년 (c)	198	3.52	1.25		
학업 성적	10등 이내	27	2.99	.62	1.501	
	11등~20등	171	3.01	.55		
	21등~30등	228	2.90	.67		
	31등~40등	161	3.02	.56		
보호자 유·무	양친부모	352	2.94	.63	1.521	
	결손가정	235	3.02	.57		
보호자 직업 유·무	맞벌이	274	2.94	.6381	.885	
	아버지 만	240	3.02	.61		
	어머니 만	46	2.95	.46		
	기 타	27	2.89	.46		

** $p < .01$, *** $p < .001$

서 말한 내용과 비슷한 결과로 연구대상 중학생이 친구끼리라도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대중매체를 통해 학생들의 성 의식이 개방화되어간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결과는 박은주(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터넷 음란물 접속과 성 의식의 관계

가. 접속실태에 따른 성 의식

인터넷 음란물 접속실태에 따라서 성 의식 전체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Ⅲ-13>의 결과를 얻었다.

접속빈도별로는 주 3회 이상 2.87, 주 1회 이상 2.84, 월 1~2회 2.62로 나타났고, $P < .001$ 수

표 Ⅲ-12. 성 허용성의 문항분포

성허용성 문항	M	±	SD
1. 장난으로라도 이성친구의 몸을 만지는 행동은 좋지 않다.	3.52	±	.99
2. 남, 여 상관없이 순결을 지켜야 한다.	3.76	±	1.04
3. 사랑이 없는 성 관계도 가능하다.	2.52	±	1.22
4. 친한 친구사이라도 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2.35	±	1.24
5. 음란물을 보면 스트레스나 호기심이 해소되므로 보아도 상관없다.	2.48	±	1.31
계	2.97	±	.61

표 Ⅲ-13. 접속실태에 따른 성 의식

	변 인	N	M	SD	F	Duncan's
빈 도	주 3회 이상 (a)	97	2.87	.61	7.131***	c < ab
	주 1회 이상 (b)	207	2.84	.37		
	월 1~2회 (c)	226	2.62	.45		
종 류	성인사이트	105	2.75	.47	.992	
	스팸메일	131	2.83	.45		
	와레즈 사이트	249	2.82	.46		
	기 타	45	2.76	.50		
시 기	초등학교	217	2.97	.55	.381	
	중 1학년	232	3.01	.61		
	중 2이상	81	3.03	.73		
경 로	직접 검색 (a)	95	2.96	.62	6.382***	d < abc
	친구 소개 (b)	167	3.12	.56		
	우연한계기 (c)	254	2.95	.62		
	기 타 (d)	14	2.47	.53		
장 소	자 기 집 (a)	369	3.04	.56	5.255**	c < ab
	친 구 집 (b)	95	2.96	.53		
	기타(학교, PC방) (c)	66	2.79	.88		
접속자	나 혼자	337	3.03	.58	2.062	
	친 구	164	2.96	.63		
	기타(선·후배, 친척)	29	2.83	.69		
시 간	30분 이내 (a)	237	3.41	1.04	3.086*	a < b c
	30분~1시간 (b)	114	3.67	.97		
	1시간 이상 (c)	179	3.57	.92		

* $p < .05$, ** $p < .01$, *** $p < .001$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고, 사후검정에서도 주 3회 이상과 주 1회 이상의 집단이 동일 집단군이 형성되었음을 보였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접하는 정도에 따라 성에 대한 고민이나 성에 대한 허용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속종류별로는 음란스팸메일 2.83, 와레즈 사이트 2.82, 기타 2.76, 성인사이트 2.75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접속경로에 따른 성 의식의 차이는 친구소개 3.12, 직접검색 2.96, 우연한 계기 2.96, 기타 2.47로 나타났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친구소개, 직접검색, 우연한 계기가 동일 집단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였고, 누구와 함께 인터넷 음란물을 접하느냐에 따라 성 의식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접속을 하면은 성 의식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다.

접속장소에 따른 성 의식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자기집 3.04, 친구집 2.96, 학교나 PC방, 친척집 2.79로 나타났고,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자기집이나 친구집에서 접속한 경우가 동일 집단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였고, 이 결과는 앞에서 말한 접속종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접속시간에 따른 성 의식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에서는 30분~1시간 3.67, 1시간 이상 3.57, 30분 이내 3.41로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동일 집단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였고, 인터넷 음란물을 접속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 의식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이기수(2000)의 연구에서 음란매체와 연관된 학생들의 성 의식의 영향에서는 음란매체의 접촉정도에 따른 학생들의 성 지식의 차이는 없었으나 성 태도나 성 실천에 있어서 음란매체에 노출정도가 많을수록 성 태도가

개방적이고, 실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나. 접속반응과 성 의식과의 상관관계

〈표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음란물 접속반응과 성 의식과의 상관관계는 접속반응이 높아질수록 성 지식과는 부적상관($r = -.201$, $P < .01$)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로 볼 때 인터넷 음란물을 많이 접속한다고 성 지식이 높아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 지식을 높이려면 인터넷음란물을 많이 접하는 것보다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접속반응과 성 고민($r = .148$, $P < .05$)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반대로 접속반응이 높을수록 성 고민이 많아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을 많이 접속하면 잘못된 성 의식이 생겨서 그 나이시기에 맞는 적절한 성적인 호기심보다는 이성에 대한 변태적인 성욕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반응과 성 허용성($r = .115$, $P < .01$)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었고, 이는 접속반응이 높아지면 성 허용성도 따라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음란물을 많이 접할수록 학생들의 성에 대해 허용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접속반응이 높아질수록 성 지식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성 고민과 성 허용성과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에게서 인터넷 음란물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성에 대한 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며, 그에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학년에 따라 나선형

표 III-14. 접속반응과 성 의식의 상관관계

	접속반응	성 지식	성 고민	성 허용성
접속반응	1.000	-.201**	.148*	.115**

* $p < .05$, ** $p < .01$

구조를 가지고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 의식을 바르게 함양하는 길이라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중학생의 올바른 성 의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그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실태 및 접속반응을 분석해보고, 중학생의 평상시의 성 지식, 성 고민, 성 허용성을 조사하여 인터넷 음란물과 성 의식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 중학생의 인터넷음란물 접속규제 방안의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10개교를 무선 표집하여, 650명에게 설문한 결과, 자료처리가 가능한 587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음란물 접속실태 및 접속반응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에 따라 인터넷 음란물 접속경험은 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로 남학생에게서 많은 접속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음란물을 접속하는 종류로는 남녀모두가 음란성 스팸메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에 따르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언제 처음 접속하였는가에 관한 질문에서는 연구대상의 학생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저학년시기 접했다고 나타나 성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정립되기 전에 잘못된 성 의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시기에 집중적인 성교육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 음란물을 검색하여 찾아보거나 친구와 함께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에 따라서는 인터넷 음란물을 접속하는 빈도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접속하는 종류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성인사이트를 보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와레즈 사이트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점점 고차원적인 접속실태를 보였다. 인터넷 음란물을 이용하는 시간을 보면 1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집단과 그 이하의 시간을 이용하는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일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장시간 이용하는 학생들의 성 의식 수준이 잘못 고정화되어 성 비행과 연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자의 유·무에 따른 결과를 볼 때,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모두계신 학생들이 결혼사정의 학생들보다 인터넷 음란물 접속실태가 다양하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해 보호자 스스로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나 이익단체에서도 부모님들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는 방안에 관해 모색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터넷 접속문화를 가정에서부터 확립할 수 있게 하여, 중학생시기에 건전한 성 의식이 생기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 의식을 알아본 결과에 있어서 성 지식의 경우, 중학생들의 성 지식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 지식이 높다는 것을 보였으며,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 지식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성 지식 문항 중 성 관계, 남녀간의 생리구조에 관해서는 높은 지식을 보였지만 태도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낮게 나와 주입식교육과 토론식교육을 병행하여, 지식과 태도를 모두 교육시킬 수 있게 해야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성교육을 실시할 때,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교육시키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스스로가 해결하는 습관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성 고민의 경우에서는 대체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성 고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대한 고민의 정도가 다양하고 높았으며, 학년별로도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였다. 특히, 이성의 나체를 본다가나 포옹이나 키스를 하고싶다. 등에서의 고민 정도는 높았으나,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고싶은 충동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는 적었다. 따라서 중학생시기에는 이성과 있을 때 지켜야할 예절이라든지 이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는 성교육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성 허용성의 경우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높은 허용성을 보여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임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의 사회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남자와 여자를 볼 때 각각 개별적인 집단이라는 생각보다는 서로가 어울려 살아갈 존재라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경향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서로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이성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셋째, 인터넷음란물 접촉과 성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성 의식이 높아짐을 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은 학생들의 성 고민을 증가시키고, 성에 대한 허용정도를 높여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건전한 성 의식에 장애요인이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에 올바른 인터넷사용을 위한 가정, 학교의 정식교육이 필요하며, 더불어 성에 대한 건전한 사고와 실천태도를 기를 수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반응과 성 의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성 지식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인터넷 음란물을 많이 접한다고 성 지식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성 고민 과 성 허용성과는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접촉반응이 높아질수록 성 고민이 많아지고 있었으며, 성에 대한 허용성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으로 보아 인터넷 음란물을 중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적으로 보완해야하며, 학생들 스스로가 건전한 인터넷문화 형성과 바람직한 성교육의 틀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2. 제언

이상의 결론을 도출하는 동안 그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천광역시라는 특정도시의 일부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인터넷 음란물과 성 의식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알아보려면, 엄격한 환경요인 속에서 통제된 실험집단을 통해 실험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으므로 두 변수간에 인과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셋째, 연구의 주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제약이 많았고, 과연 성인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 의식과의 상관 관계가 있을지 궁금하였고, 이에 따르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김명기(1999). 근로 청소년의 성 가치관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태균(1999). 컴퓨터 음란물이 청소년 학습과 성 반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문정혜(2000).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문휴자(1986). 매스미디어의 성 역할 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박은주(1993). 청소년의 성 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윤태준(2000). 음란 영상매체가 청소년의 학습집중도와 성 반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이기수(2000). 음란매체가 초등 학생의 성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이문자(1998). 초등학생의 성교육 및 성 태도 실태분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이승희(1991). 중학생의 성 의식에 관한 일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이명화(1999).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 갈등에 성 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한우(1996). 청소년의 음란매체 경험과 성적 충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이해연(2002). 초등학생들의 성 의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장선화(1997). 음란물이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조양순(1998). 비행청소년의 성 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최경화(2001). 음란 영상매체가 청소년의 성 행동에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최옥술(1992). 여고생의 성 지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김상원(1997). 청소년의 성 의식 및 성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경기 교육 논총.
18. 최영애(1996). 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대책. 교과연구(가을호).
19.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1).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 교육 교재.
20.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 유해환경 조사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1. 체육청소년부(1992). 「청소년 유해 환경개선 대책에 관한 연구」 (체육청소년부).
22. 한국 청소년 개발원(1997). 청소년의 대중매체 건전 활용방안 연구.
23. 한국 형사정책연구원(2000). 「형사정책연구」 (2000, 봄호).
24. 함중한(1992). 「청소년학 원론」. 서울: 대한 교과서주식회사.
25. H. Gleitmaan(1988). 임능빈외 편역. 「일반 심리학」, 서울: 서울과학사.
26. Hwkins G. & Zimring F. E., (1988). 「Pornography in a free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 K. F. Schaff(1987). 황순자 역. 「정신건강과 성 역할」, 서울: 형설출판사.